

## | 풍경으로의 여행 |

# 전쟁과 평화, 아픔과 사랑이 공존하는 '서해의 보석' 백령도

글·사진 정철훈 여행작가

서울예전 사진과를 졸업했다.

사진이 좋아 여행을 시작했고 여행이 좋아 여행작가로 살아간다.

- 2017~2018년 한국관광공사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위원
- 2013~2014년 코리아 실�크로드 탐험대 역사기록팀(오아시스로, 해양로 탐험)
-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2005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선정 <2030 청년작가 10인>



백령도는 우리 땅의 서쪽 끝이자 북쪽 끝이다. 중국 산둥반도와 190여 km, 북한의 장연군과는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백령도와 인천을 오가는 뱃길이 200km 남짓이니 서울보다 북한이나 중국과 더 가까운 섬이다. 이런 지리적 상황은 백령도를 군사적으로나 문화·경제적으로 주목 받았다. 조선 후기, 서구 열강은 백령도를 징검다리 삼아 우리 땅에 기독교와 천주교를 전하러 했고, 6·25전쟁 당시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쟁과 평화, 아픔과 사랑이 공존하는 백령도는 그래서 호국의 달인 6월에 찾아보기 더 없이 좋은 여행지이다.

백령도는 우리 땅의 서쪽 끝이자 북쪽 끝이다. 중국 산둥반도와 190여 km, 북한의 장연군과는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백령도와 인천을 오가는 뱃길이 200km 남짓이니 서울보다 북한이나 중국과 더 가까운 섬이다. 이런 지리적 상황은 백령도를 군사적으로나 문화·경제적으로 주목 받았다. 조선 후기, 서구 열강은 백령도를 징검다리 삼아 우리 땅에 기독교와 천주교를 전하러 했고, 6·25전쟁 당시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쟁과 평화, 아픔과 사랑이 공존하는 백령도는 그래서 호국의 달인 6월에 찾아보기 더 없이 좋은 여행지이다.

### 우리 땅 최대 군사 요충지

백령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도만 봐도 알 수 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을 따라 북쪽으로 불쑥 올라선 백령도는 보기에다 어색할 정도다. 이 같은 지리적 위치가 서해의 외딴섬 백령도를 한국전쟁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 주목받게 만들었다. 특히 휴전



동키부대 우물



동키부대 막사



유격군대백호부대전적비



을 앞둔 전쟁 막바지에는 수시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 중심에 동키부대(백호부대)가 있다. 동키부대의 전신은 장연군 무장대.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들은 1·4 후퇴 이후 백령도로 숨어들었고, 미군에 의해 유격·첩보 부대로 재편됐다. 백령도와 대청도를 주둔지로 삼은 동키부대는 휴전될 때까지 수많은 전공을 세웠다. 전쟁의 판세를 뒤집은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것도, 서해 북방 한계선이 지금의 위치가 된 것도 그들이 있기에 가능했다. 백령면 진촌리 ‘진촌공공하수처리시설’ 옆에는 동키부대원들이 사용하던 작은 우물이 있는데, 그 맞은편 막사가 동키부대원들이 머물던 곳이다. 북한의 장연군이 바라보이는 백령면 진촌면 마을 언덕에는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유격군 백호부대 전적비도 세워졌다.

### 기독교와 천주교가 시작된 곳

백령도는 군사 관련 유적이 많은 곳이지만,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면 또 다른 모습을 확



백령기독교역사관과 중화동교회



백령성당에 안치돼 있는  
김대건 신부 유해 일부



백령성당



백령기독교역사관 전시물



백령기독교역사관 내부



인할 수 있다. 우리 땅에 평화와 사랑의 상징인 종교의 씨앗이 뿌리내린 곳이 백령도이기 때문이다.

백령도에는 200여 년 전인 1816년 처음 선교적 접근이 있었다. 영국 함대 2척이 중국 주재 대사를 수송하는 임무를 마친 뒤 한국의 서해안에서 해로탐사를 실시했던 것. 이를 계기로 16년 뒤인 1832년에는 최초의 내한 선교사 귀츨라프가 백령도를 찾았다. 백령도의 기독교 역사는 중화동교회가 설립됨으로써 완성된다. 1898년 개화파 정치가 허득이 설립한 중화동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로, 백령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母敎會)다. 백령도의 선교 역사는 중화동교회 옆에 있는 백령기독교역사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

화동교회 입구 계단에서 만나는 웅진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천연기념물 521호)도 놓치지 말자. 높이 6.3m에 수령 100년 안팎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무궁화로 알려져 있다.

백령도는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1846년 백령도를 통한 선교사 입국 루트를 개척하던 중 관군에게 붙잡혔고, 새남터에서 순교한 것. 하지만 이후 그가 개척한 루트를 통해 프랑스 선교사 17명이 입국하기도 했다. 1984년 한국 천주교 창립 200주년을 맞아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김대건 신부와 당시 선교사 6명을 성인품에 올렸다. 백령면 진촌리에 위치한 백령성당에는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가 안치돼 있다.

## 하늘이 내린 천혜의 풍광을 간직한 곳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품은 백령도라지만, 무엇보다 백령도를 돋보이게 하는 건 하늘이

사자바위







두무진 일몰



두무진 형제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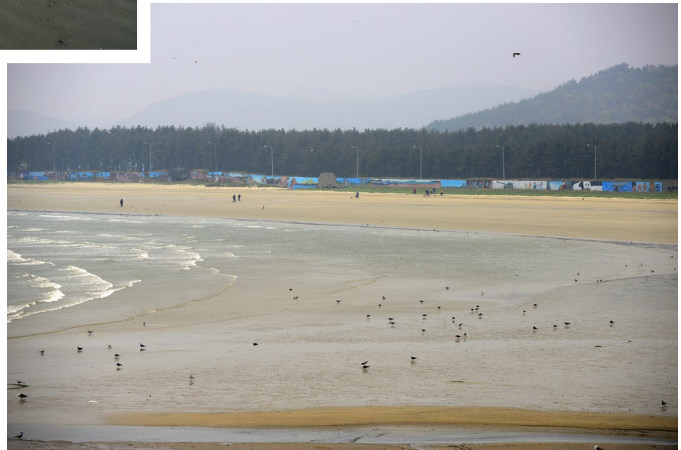




두무진



사곶해변



용기원산에서 바라본  
사곶해



내린 아름다운 풍광이다. 그중에서도 두무진 일대는 '신들의 조각품'이라는 애칭에 손색이 없는 절경을 자랑한다. 해안가에 늘어선 거대한 암석들이 마치 무리 지어 선 장군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두무진이라 이름 붙은 이곳은 명승 8호이기도 하다. 주변의 선대암과 형제바위,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일몰도 두무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풍경이다. 두무진 전망대까지 가는 두무진 포구에서 이어지는 호젓한 산책로를 따라가면 된다.

콩알을 닮은 자갈



콩돌 해변





심청각



심청각 전시물



두무진과 함께 백령도를 대표하는 여행지는 심청각이다. 인당수를 배경으로 자리한 심청각에서는 북한의 장산곶이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보인다. 2층으로 지은 심청각에 들어서면 <심청전>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천연 비행장이라 불리는 사곶 사빈(천연기념물 391호)도 빼놓을 수 없다. 이곳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세계에서 두 군데뿐인 해변으로 유명하지만, 4km에 이르는 해변과 완만한 수심 등 해수욕장으로도 좋은 조건을 갖췄다. 해변에서 호젓한 휴식을 즐기고 싶다면 이만한 곳도 없지 싶다. 남포리 콩돌해변(천연기념물 제392호)에서는 동글동글 작은 자갈들이 파도에 쓸리며 내는 예쁜 해조음을 들을 수 있다.

용기포 구(舊) 선착장에서 이어지는 용기포 등대와 등대해변은 두무진과는 또 다른 멋을 자랑하는 기암을 만날 수 있는 곳이며, 고봉포구의 사자바위와 창촌포구의 용트림바위도 멋스럽다. 백령도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용기원산 전망대에 올라볼 일이다. 전망대는 아직 공사 중이지만, 전망대 주차장까지 올라가도 백령도의 전경을 조망하기에 충분하다.

#### 등대해변





용기포등대

---

<b>맛집</b>	<b>궁전식당</b>	아귀찜, 백령면 백령로, 032)836-7721
	<b>부두식당</b>	자연산 활어회, 백령면 백령로, 032)836-0008
	<b>사곳냉면</b>	수육 냉면, 백령면 사곳로122번길, 032)836-0559
<b>숙소</b>	<b>아일랜드캐슬</b>	백령면 백령로, 032)836-6700, <a href="http://www.islandcastle.kr">www.islandcastle.kr</a> (굿스테이)
	<b>백령리호텔</b>	백령면 백령로280번길, 032)836-3233, <a href="http://www.brdo.co.kr">www.brdo.co.kr</a>
	<b>트윈스호텔</b>	백령면 백령로264번길, 032)836-1100
	<b>그린파크</b>	백령면 백령로297번길, 032)836-5551